23개 단체 동참 민간차원 추진

경주 남산 세계문화유산 등재추진 과정

문화재 파악-경주교도소 이전 등 '시급'
경주시 감은사지등 잠정목록 신청

경주남산 세계문화유산 등재추진위가 22일 오후 7시 경주문화원에서 발기인 대회를 갖고 공식 출범한다. 이로써 민간에서 최초로 추진한 경주남산 세계문화유산 등재움직임이 가시화 됐다.<본지 제165호 1면참조>

현재 한국불교사회연구원 신라문화동인회 동국대 경주경실련 경주대 경주시지방행정동호회등 23개 기관과 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경주남산 세계유산 등재촉구를 위한 시민 모임 발기준비위(위원장 김윤근)는 10일 10차 회의를 갖고 각계인사 1백여명을 발기인으로 위촉해 활발한 활동이 기대되고 있다.

준비위는 추진위 발족과 함께 경주남산의 세계문화유산 등록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고 남산을 조명하는 세미나, 문화유적을 찾아떠나는 시민걷기대회, 경주시민 결의대회를 개최하여 시민운동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어서 눈길을 끈다.

불교문화재가 산재하여 노천박물관으로 불리는 경주 남산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기 위한 선결문제는 남산 주변 정리.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허곤 홍보부장은 "지난해 정부차원에서 경주남산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려 했으나 문화재현황 파악과 주변 정리가 안돼 반려됐다"고 밝혔다.

마침 문화재관리국이 남산주변정리를 위해 올해 6억원을 책정했으나 문화재주변 등산로 정비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주변정리의 가장 큰 걸림돌로 지적되는 경주교도소와 폐타이어장의 이전을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를 위해 한국불교사회교육원(원장 돈관스님)은 3월 1일부터 경주남산 세계문화유산 등록과 성역화를 위한 경주교도소 이전 10만인 서명운동을 대구불교산악회를 비롯한 50여개 단체들이 석굴암과 팔공산 갓바위 등에서 전개하고 있다. 1차 마감하는 15일까지 3만여명이 서명에 동참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다른 과제는 교계의 적극적인 참여와 재정문제로 집약된다. 경주남산이 '땅위에 옮겨놓은 부처님나라'라는 말로 통용되고 있는 것에 비해 교계의 관심이 미약해 보다 적극적인 홍보와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마지막으로 지자체와의 연계문제. 경북도가 2천년까지 경주를 국제규모의 불교문화연구도시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며, 경주시도 7일 경주남산과 양동민속마을 첨성대 감은사지등을 한데묶어 세계문화유산위원회에 예비목록 이전단계인 잠정목록으로 신청했다.

이에따라 한국유네스코와 문화재관리국은 경주시 신청서를 6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위원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경주남산등 신청 유산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되기 위해서는 세계문화유산위원회가 실시하는 3차례의 현지조사와 평가를 거쳐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기간은 2~3년으로 꼽힌다.

경주남산 세계문화유산 등재운동와 관련 한국불교사회교육원 최광복 사무국장은 "경주남산의 성보문화재 훼손은 심각한 상태에 이르고 있다"며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여 국제적인 기술과 재정을 지원받아 훼손을 막고 영구히 보존될 수 있도록 전 교계의 참여속에 신속히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김원우 기자

목어

제4의 물결

세계적인 미래학자 앨빈 토플러(70)가 방한하여 김대통령을 만났고, 국회에서 연설도 했다. 신문·방송을 통해 한국의 내일과 다음 천년을 내다 보기도 했다.

그는 sbs와의 대담 '한국 어디로 갈 것인가'에서 늦은밤 시청자들에게 희망을 안겨 주면서 귀담아 들어야 할 말을 했다.

"한국을 총체적 위기로 보지 않는다. 경제기적 이후에 오는 과정이다. 실업자 고통을 소홀히 여기지 말자. 위기를 경제기적을 위한 재도약 창출 기회로 삼자.

중앙집권식 권력이 늘 최상·최선의 결정을 내릴 수는 없다. 보다 개방적인 정책시스템에서 위기극복의 힘을 얻을 수 있다.

한국에는 경제만 있는게 아니다. 지역·종교 등 여러 특수요소를 감안해서 IMF가 약과 처방을 내려야 한다. 한국은 땀띠정도를 앓고 있다.

제3의 물결 다음엔 다양화의 물결이 일 것이다. 그러나 세계가 '한나라'로 변하지는 않는다. 한국의 지정학적 역할은 중국에 따라 각나라에 영향을 미친다. 아직 중국장래를 점칠 수 없으나 엄청난 권력다툼과 갈등이 있을 것이다.

한국에 온지 얼마 안돼 중요한 평가는 못하겠으나 한국은 회복 열정을 갖고 있으므로 두가지 당면과제인 '개혁' '경쟁력'에 성공하리라고 본다. 문제는 개개인 보다 제도에 있다. 과거와 다른 재도약을 해야한다."

중앙일보의 뉴 밀레니엄 특집에서는 "유전공학과 과학기술이 접목돼 인체에 적용되면 인간에 대한 정의가 달라지고 인간진화의 제4의 물결이 올는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지난 1천년을 관통하는 불멸의 정신이나 패러다임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는 불자들의 귀에 익은 말을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는 만물유전을 강조해 '같은 강물에 두번 들어갈 수 없다'고 말했지요. 끊임없이 지속된 것은 변화뿐 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것은 아무것도 없다"

고정불변하는 것은 없다는 불변의 진리 '제행무상'을 제대로 알면 IMF는 물론 제4의 물결이 와도 끄덕없이 잘 대처해 나갈수 있을 것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널리 펴야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1면 '신흥사'서 이어짐

박철언 자민련불자회장(자민련 부총재)도 "모든 사람들이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바른 길을 가게해 국난을 극복하게 해달라"고 발원문을 낭독했다.

4월5일 오후2시 간간히 단비가 내리는 가운데 진행된 국난극복 전국순회 제1차 법회에 김대중대통령은 화환을 보내 국난극복을 기원했다. 이 자리에는 종단협의회 회장 월주스님(조계종 총무원장)을 비롯 태고종 인곡·천태종 운덕·관음종 홍파·총지종 총지화·원효종 무진·원융종 보인 총무원장과 법륜종 정각이사장 등 각 종단 지도자들과 전두환前대통령, 신낙균문화관광부장관, 한영애국민회의부총재, 박철언자민련부총재, 최각규강원도지사, 동문성속초시장, 불교방송 성낙승사장, 현대불교신문 김광삼사장, 조계종 제3교구신도회 김노언회장, 신흥사신도회장 등 교계 정·관계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다.

종단협주최 '국난극복을 위한 참회대법회'는 오는 11월28일까지 ▲조계종수덕사(5월25~26일) ▲태고종(11.15~16/선암사) 천태종(7.4~5/관문사) ▲진각종(10.15~16/총인원) ▲관음종(6.26./삽고천) ▲총지종(9.22~23/정각사) ▲법륜종(11.27~28/보현정사)이 각각 주관해 봉행된다.

속초=위영란·김원우 기자

국난극복 신흥사법회 의미-이모저모

○…IMF시대 범종단 첫 행사

'국난극복을 위한 참회대법회'는 IMF시대에서 종단협의회 차원의 범불교행사로는 처음이라는 점에서 교계 안팎의 관심을 모았다.

그동안 종단협의회는 종단진흥회 창립건을 두고 이견차로 불협화음을 표출해오면서 2년여동안 합동행사를 가져오지 못했다.

따라서 국난극복 참회대법회는 종단화합의 의미도 크게 부각됐다. 더구나 이번 법회는 최근 선암사 문제로 불편해진 조계종과 태고종이 국난극복이라는 대의를 두고 함께 자리해, 참회 기원하는 법회여서 대사회적으로 시사하는 바가 컸다는 평가.

○…월주-인곡-운덕스님 '한자리'

조계종 총무원장 월주스님과 태고종 총무원장 인곡스님, 천태종 총무원장 운덕스님이 나란히 합장하고 법회참석하는 모습은 법회장 분위기를 더욱 화합과 기원의 장으로 만들었다. 식장 상단에 마련된 좌석에서 월주스님과 인곡스님은 함께 나란히 앉아 자주 웃으며 대화를 나눴다.

○…전 前대통령-신장관 대화

전두환 前대통령과 신낙균문화관광부장관은 1부 법요식을 마치고 2부 기념식수장으로 이동하면서 많은 대화를 나눠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

○…각 도 사찰흙 합토해 식목

식목일이기도 한 이날 2부로 진행된 국민화합 식목행사에는 전국 각 도의 사찰 흙을 합토해 지역화합의 의미가 더욱 기중됐다. 서울·경기 흙은 화계사(주지 성광), 충청도 흙은 수덕사(주지 법장), 경상도 흙은 부산 정각사(주교 정정심), 전라도 흙은 목포 보현정사(주지 정각)에서 각각 수송돼 이날 심은 3m크기의 주목을 덮었다.

○…폭우 신흥사서는 단비로

법회 참가자들의 공통적인 대화내용은 날씨. 전국에서 30mm의 강수량을 보이던 행사당일 날씨가 유독 설악산에는 잔잔한 단비로 내려 '국난극복 기원 날씨'였다고 한마디씩.

신흥사측은 이른 아침부터 비가 내리자 우의 1천벌을 준비해 행사에 만전을 기했다.

○…거사들 대거 참석 눈길

이날 법회는 국난극복에 남녀노소가 없음을 보여주듯 여느 법회와는 달리 거사들이 대거 참석해 눈길.

특히 전국산악인불자회는 단복을 입고 깃발을 세우고 참석하는 열의를 보였다.

○…전 前 대통령 백담사 참배

장세동 前안기부장, 안현태 前경호실장, 이원홍前문공부장관 등 5공핵심측근들을 대거 대동하고 법회에 참석한 전前대통령은 법회를 마치고 88년부터 2년간 머물었던 백담사를 참배하고 나무를 심었다.



◇이번 법회는 종단화합에도 큰 몫을 했다는 평이다. 사진 오른쪽부터 조계종 월주·태고종 인곡·천태종 운덕 총무원장과 신흥사 주지 도후스님.



◇정·관계 주요인사들이 대거 참석했다. 사진 왼쪽부터 전두환 前대통령, 신낙균 문화관광부장관, 최각규 강원도지사, 박철언 자민련부총재.



◇종단지도자들과 각계 인사들은 국민화합을 기원하며 각 도의 사찰에서 가져온 흙을 섞어 식수를 했다.



◇간간히 뿌린 봄비속에 1천여 사부대중은 한마음으로 국난극복을 기원했다.



부처님의 자비로 이웃과 함께



불기2542(1998)년도 부처님 오신날 행사일정 안내

구분	행 사 명	일 시	장 소	집 행 처	연락처
중요행사	1. 법요식	5. 3(일) 오전 10시	조계사	봉축위원회/조계사	
	2. 나라와 민족을위한 기원법회	4. 29(수) 오후 7시	신라호텔	봉축위원회	
	3. 연등축제	4. 26(일) 오후 2시~10시	우정국로, 동대문운동장··종로→조계사	봉축위원회	
	4. 전통등 재현	4. 22 ~ 5. 3 오전 11시	봉은사 법왕루	전통등 연구회/봉은사	
	5. 시청앞 연꽃등 점등식	4. 21(화) 오후 7시	시청앞 광장	봉축위원회	
	6. 애기봉 OP 점등식	4. 14(화) 오후 6시 30분	애기봉 OP	봉축위원회/해병청룡사·	
문화예술행사	1. 막고굴 그림전	3. 1 ~ 5. 3	고불미술관	백양사	0685) 92-7502
	2. 서각전	4. 1 ~ 4. 6	공평아트센타	지상스님	0553)545-9597
	3. 정비파 '석굴암' 판화전	4. 22 ~ 4. 28	공평아트센터2층	한국불교문화원	02) 739-8430
	4. 시낭송회	4. 18(토) 오후 5시	조계사 문화회관	현대불교 문인협회	02)308-9520
	5. 용성선사	4. 23 ~ 4. 25	국립극장	대각회	02)765-0972
	6. 연꽃사진 전시회	4. 30 ~ 5. 9	사진이 있는 마당	광덕월	02)917-1849
	7. 봉축기념 사진전	4. 30 ~ 5. 3	조계사	대한민국불교사진연합회	02)611-8262
	8. 영화 '성철' 시사회	5월 중순	명보/허리우드/씨네하우스	월드씨네텍	02)517-1511
	9. 판소리 불타전	4. 26(토) 오전 10시	인성 도안사	도안사	0334)676-8700
	10. 봉축꽃꽂이 작품전시회	4. 15(수) 오후 3시	길상사 극락전	한국불교꽃꽂이회	02)918-0034
	11. 선암스님 연꽃사진전	5. 13 ~ 5. 19	동덕갤러리	선암스님	02)392-9228
기타경축행사	1. 애기봉 OP 점등식	4. 14(화) 18:30	애기봉 OP	칭룡사	0341)988-4936
	2. 기타 전방 OP 점등	4. 3 ~ 4. 23	13개 전방OP	각 군법당	02)748-1728(군승단)
	3. 불교웅변대회	4. 26(일) 13:00	조계사 대웅전	불교웅변인협회	02)735-1896
	4. 원각사지 탑돌이	5. 2(토) 19:00	탑골공원	동산빈야회	02)732-1206~8
	5. 건강가족 마라톤대회	5. 5(화) 10:00	목동청소년회관 주변	목동청소년회관	02)646-6819
학술행사	1. 고학력시대의 불교의 진로	4. 23(목) 13:30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02)260-3500
	2. 불교와 인터넷	4. 25(토)	불일문화관	보조사상연구원	02)733-5315
	3. 서양철학과 불교사상의 만남	4. 25(토)	정신문화연구원	정신문화연구원	0342)709-1815
	4. 이땅에 자비와 평화를···	4. 28(화) 15:00	조계사문화교육관	실천불교승가회	02)725-4277
	5. 종교 문화속에서 의례···	5. 9(토)	서울대 예정	한국종교학회	02)880-6237
	6. '김대중 정부의 통일정책과 불교계의 대응모색'	5. 15(금) 14:00	전불련 법당	전국불교운동연합	02)720-1902
	7. "국난극복을 위한 불교와 자비의 실천"	5. 16(토) 14:00	불교회관 1층	한국교수불자연합회	02)720-6618

구분	행 사 명	일 시	장 소	집 행 처	연락처
어린이·청소년행사	1. 연꽃노래잔치	4. 19(일) 오후 1시	동국대 중강당	서울불교청년회	02)730-9108
	2. 봉축기념 연주회	4. 25(토) 오후 4시 30분	한국일보 연주홀	대한불교 소년 소녀합창우용단	02)725-7527
	3. 제 4 회 부처님 그림 그리기 대회	5. 5(일) 오전 10시	길상사	월간'불광 목이불교박물관	02)420-3300
	4. 봉축 어린이 글짓기 대회	5. 5(일) 오전 10시	총지사	까치미술회	02)873-6646
	5. 청소년 종합예술 경연대회	5. 17(일 오후 2시	동국대 중강당	청소년교화연합회	02)735-8165
	6. 참나 청소년 통일환경 문화 예술대전	5. 17(일) 오후 2시	보라매공원	한국불교청년회	02)747-5787
	7. 전국청소년 시경공모전	5. 9(토) 오전 10시	조계사	파라미타 진국교법사단	02)723-6165~6
자비의 손길	1. 군장병불자 위문품보내기	3. 10 ~ 4. 30	각 군부대	군불교진흥회	02)749-5135
	2. '삶을 생명을 나눕시다'100일 캠페인	3. 14 ~ 6. 22	전국 지역	생명나눔실천회	02)734-8050
	3. 실직노숙자(홈리스) 보호소 개소	4월 중	조계사	조계사/복지재단	02)723-5101
	4. 강북장애인복지관 개관 및 장애인의날 기념 지선 큰친지	4월 17일 오전 11시부터	강북장애인복지관 드림랜드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02)723-5101
	5. 실직노숙자보호소기금마련 우리옷바자회	4. 18 ~ 26일	조계사	한국불교문화원	02)739-8430
	6. 청각장애인과 한마음 체육대회	4. 19 10:00	석촌초등학교	광림사 연화복지학원	02)202-5831
	7. 장애인의 날 기념법회 및 자비의 잔치 한마당	4. 19 11:00	용산기족공원	원심회	02)720-4528
	8. 연우대 수계법회	4. 19 10:00	논산 연무사	군불교진흥회	02)749-5135
	9. 원각사 옛터 경로잔치	4. 19 11:30	탑골공원	조계사청년회/연예인불자회	02)735-3724
	10. 성남 '들꽃마을' 방문	4. 23. 11:00	성남 들꽃마을	사회복지재단	02)723-5101
	11. 소쩍새마을 방문	4. 23. 오후	원주 소쩍새마을	사회복지재단	02)723-5101
	12. 재소자위문 및 수계법회	4. 24. 14:00	인앙교도소	도선사	02)993-3161~3
	13. 외국인노동자 성지순례	4. 25 ~ 4. 26	미정	무전 석왕사	032)668-0077
	14. 불우이웃돕기	4. 26 ~ 5. 3	군법당, 고아원	봉은사	02)511-6070~4
	15. 경로위안잔치	5. 3(일)	도선사 입구	도선사	02)993-3161~3
	16. 노인재소자 위안잔치	5. 6. 11:00	청송교도소	백련정학회	02)322-3526

불기 2542(1998)년도 **봉축위원회**